



경주는 지금 축제 분위기... 경주가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 선정'으로 축제분위기다. 경주시내 곳곳에서 유치확정을 기념하는 현수막이 내걸렸다.

[관련기사 2면]

'영호남 힘으로 모두 함께 대한민국' 대축전

2024 영호남 상생협력 화합 대축전 서울 광화문서 열려... 이철우 경북지사, "영·호남 상생협력 화합 대축전으로 경북과 전남, 지방과 수도권 상호 소통 화합 지방 잘사는 완전한 지방시대 열자" 강조

함 대축전을 통해 경북과 전남, 지방과 수도권이 상호소통하고 화합하며 지방이 잘 살게 되는 완전한 지방시대를 열어 가자"고 강조했다.

올해 3번째 열리는 화합 대축전은 문화와 예술로 서로 소통하고 화합, 그 에너지를 바탕으로 새로운 지방시대를 이끌어간다.

평소 남다른 우애와 협력관계를 다져온 이철우 경북지사와 김영록 전남지사가 함께 제안해 시작됐다.

2022년 경북도청 새마을관광, 지난해는 전남 순천만 국가정원에서 열렸다.

행사는 2022년도부터 매년 개최, 그 범위를 점점 넓혀가고 있다.

올해는 대한민국의 중심 광화문에서 열어 영호남을 넘어 모두가 함께하는 전 국민 화합 대축전으로 펼쳐진다.

행사 첫날 광화문 특설무대에서 호남 청소년 댄스 경연 대회 본선과 개막식이, 열린다.

25일은 영호남 힐링 버스킹, 상생콘서트,



사진은 '2023 영호남상생협력화합대축전'에서 이철우 경북지사와 김영록 전남지사가 함께 하는 모습(사진=경북도 제공)

마지막 셋째 날은 영호남 힐링 버스킹 공연이 개최된다.

놀이마당에서는 영호남 청년작가 ART展과, 관광홍보라운지(경북관, 전남관), 조형물 미디어 큐브, 솫품 공모전 입상작 전시가 열리고, 육조거리에서는 영호남 농수특산물 판매전인 '새마을시장'이 3일간 열린다.

축제 첫날 개막식에 앞서 '영호남 청소년 댄스 경연 대회 본선'에서는 예선전을 거쳐 올라온 영호남 청소년댄스팀(6팀)의 본격적인 겨루기가 펼쳐진다.

경연대회 우승팀은 프로댄스팀(L)과 콜라보 퍼포먼스로 주제공연에 참여한다.

화합 대축전의 하이라이트인 개막식( 저녁 7시30분)에는 완전한 지방시대를 위한 열망, 영호남의 하나 된 힘, 나아가 전 모든 국민이 화합하며 새로운 대한민국의 행복한 미래를 열원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뮤지컬 형식의 주제공연에는 2인조 그룹 가수 노라조, 홍지민과 10여 명의 뮤지컬 배우, 영호남 100인 합창단이 출연한다.

영호남 지역의 세대별 인터뷰 영상, 지방에서 미래를 위해 도전하는 청년들의 모습을 영상으로 볼 수 있다.

영호남 100인 합창단이 부르는 '모두 함께 행복하게'라는 주제곡으로 대망의 피날레를 장식하게 된다.

둘째 날부터는 영호남 두 지역을 대표하는 예술인들로 구성된 공연단의 '상생 콘서트', '힐링 버스킹'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시간대별로 특설무대에서 만날 수 있다. 광화문 놀이마당에서는 '청년작가 ART展'과 '관광 라운지(경북관, 전남관)', '미디어 큐브' 조형물이 전시되는데 관람객은 영호남 청년 작가들의 작품관람은 물론 구매도 가능하다.

경북과 전남지역의 주요 관광지에 대한 유용한 여행 정보를 얻어갈 수 있다.

놀이마당을 다 둘러본 후 종합안내소에서 둘러소정의 기념품을 받아갈 수 있다.

육조거리 가도에서는 경북과 전남지역의 30여 농가가 참여, 지역 농·수·특산물을 판매하는 '새마을시장'이 열린다.

장터를 찾는 구매객들은 지역을 방문하지 않고도 현장에서 시식은 물론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향토 제품을 구입할 수 있다.

영호남 상생협력 발전 방안을 위한 동서미래포럼이 서울 코리어나 호텔에서 열린다.

재경 시도민회와 문화원연합회, 향교재단 등 유립단체, 여성단체협의회, 농협중앙회 경북본부, 경북개발공사 등 여러 분야에 걸쳐 활발한 교류를 추진, 매년 확대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성용 기자

'2024 영호남 상생협력 화합대축전'이 막 올랐다.

행사는 경북도와 전남도가 손잡고 24~26일까지 3일간 서울 광화문에서 연다.

구호는 '영호남의 힘으로 모두 함께 대한민국'이다.

새로운 지방시대, 지역을 초월, 너와 나, 우리 모두 하나가 돼, 화합하는 영호남에서 모두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자는 의의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영호남 상생협력 화합 대축전을 통해 경북과 전남, 지방과 수도권 상호소통하고 화합하며 지방이 잘 살게 되는 완전한 지방시대를 열어 가자"고 강조했다.

응취리주민들, 72년만에 돌아온 국군유해 추모식

마을 지키다 전사장병 유가족에게 무릎 꿇고 큰절한 이장 감동 도가니

칠곡의 한 마을 주민들이 6·25 전쟁 당시 마을을 지키다 72년 만에 유해로 돌아온 장병의 추모식을 열고 유족들에게 감사인사를 전했다.

가산면 응취리 주민들은 지난 20일 마을 앞산에서 전사해 72년 만에 유해로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고(故) 김희정 중위의 추모식을 열었다.

주민들은 추모식을 마치고 김중위 가족을 과반반쯤에서 자란 쌀 갈사, 마늘 등 10여종의 농산물을 택배로 유가족에게 보냈다.

서울, 대전, 대구에 흩어져 살고 있던 세 명의 유가족은 주민들의 정성 어린 선물들

받자 지난 23일 응취리를 찾았다.

이중록 응취리 이장은 유가족이 마을회관에 도착하자 유가족 가운데 나이가 가장 많은 김근식(73대구)씨에게 무릎을 꿇고 큰절하며 고인의 희생에 감사와 존경을 표했다.

응취리 주민들은 장모가 사위에게나 대접하던 집에서 키우던 닭을 잡아 정성껏 요리해 유가족에게 내어놓았다.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기원하며 전국 유일의 양봉 특구로 지정된 칠곡에서 생산된 꿀을 선물했다.

마을에서 1km 떨어진 유해가 발견된 현장을 찾아 유가족에게 발굴 당시를 설명하며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

유가족은 마을 주민을 위해 대전에서 유명한 제과점의 빵 서른 개와 음료수 아홉 박스를 준비했다.

유가족 김민경(66대전)씨는 "주민들의 정성에 큰 감동을 받아 감사인사를 전하기 위해 응취리를 찾았다"고 말했다. 조미경 기자

김천&군산 '김군맥주', 군산 여름밤 흥뻥 적서

'김군맥주'의 매력 뽑내 경상·전라 넘어 세계로



'군산 수제 맥주 & 블루스 페스티벌'에서 참가한 김중섭 김천시장과 강임준 군산 시장이 김군맥주를 들고 환하게 웃고 있다. (사진=김천시 제공)

김천시가 군산시와 손잡고 세계 무대로 뻗어나간다.

시는 지난 21일 군산근대역사박물관 일대에서 열린 제3회 '군산 수제 맥주 & 블루스 페스티벌'에서 참가했다.

행사에서 군산시와 원료를 반반 섞어 만든 '김군맥주'를 처음 출시, 시민들뿐만 아니라 국내외 관광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김군맥주'는 김천시 농식품유통과 식품개발팀이 지난 4월 중순 김천시 '비어카스텔' 공동대표와 함께 군산시 농업기술센터를 방문, 자매도시 원료를 섞은 친선 맥주를 생산해 보자고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수제 맥주로 유명한 군산시가 적극 협력해 지난달 28일 업무협약을 체결하자마자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자매도시 우호 관계를 나타내기 위해 두 도시 머리글자를 따서 만든 '김군맥주'다.

'비어카스텔'에서 만든 '김천 에일'과 '비어 포트'에서 만든 '군산 바이젠' 두 가

지 종류의 세트 상품으로 두 종류 모두 김천 밀과 군산 맥아를 반반 섞어 만들었다.

지난 23일까지 열린 페스티벌에서 언론 매체 집중 조명 받으며 큰 인기몰이를 했다.

블루스 음악과 더불어 군산의 여름밤을 흥뻥 적신 '김군맥주'는 오는 9월 6일부터 시작되는 '2024 김천 포도 축제'에서도 선보여 김천시민들과 김천을 찾는 관광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자매도시 김중섭 김천 시장과 강임준 군산 시장은 개막식 축사와 퍼포먼스에서 "1998년부터 25년간 자매결연을 해 온 두 도시가 지역 농산물을 반반 이용해 출시한 이번 '김군맥주'는 협력과 상생의 의미를 담고 있어 더욱 뜻깊다. 앞으로도 우호 증진과 상호 발전을 위해 노력하자"라고 화합을 다짐했다. 이영호 기자



단체장 일정



김경열 영덕군수는 25일 오전 영덕읍에 있는 임경대 가운데서 열리는 제74주년 6·25전쟁 기념행사에 참석한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25일 오전 영양군 문화체육센터에서 열리는 6·25전쟁 제74주년 기념식에 참석한다.

2025 APEC 정상회의의 경주 유치

2025 APEC 정상회의의 경주 유치. Includes a family photo and a detailed list of 1000 items for the summit.

# 다윗이 골리앗 무찌르고 2025 APEC 유치 승리 깃발 꽂았다

(경주) (인천·제주)

주낙영, 경주 백년대계 썼다  
APEC이 열리는 2025년 11월  
형형색색의 단풍 최절정기로  
세계정상 영부인들 한복입고  
불국사, 동궁과 월지, 대릉원  
등에서 찍은 사진이 전 세계  
알리면 그야말로 감동드라마  
세계이목 경주 대한민국 집중  
신라천년제국의 부활 알려...

주낙영 경주시장이 '2025 APEC 정상회의의 유치'로 백년대계 썼다.  
경주시는 2021년 7월 전국 최초로 2025 APEC 정상회의의 유치 도전장을 냈다.  
약 3년간 전 사·도민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유치에 전력질주했다.  
결과는 승리였다.  
지난 20일 외교부 산하 APEC 정상회의 개최 도시선정위원회에서 경주가 선택됐다.  
오는 27일 외교부 준비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한다.  
사실상 경주로 확정된 셈이다.  
시는 일찌감치 경북도와 함께 범시민추진위와 민간추진위, 도시의회 유치특위 구성 등 민간 협력체계를 구축, APEC 경주유치 공감대를 전국적으로 전파했다.  
이철우 경북지사,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대통령실, 외교부 등 여러 요로로 대정부 유치활동을 전개해 왔다.  
싱가포르 APEC 사무국을 찾아 경주 당위성을 피력했다.  
APEC 유치 기원 경주 빛꽃마라톤 대회, 슈퍼콘서트, 각종 포럼 및 시민사회단체 유치 홍보 등 지역사회에서 APEC 유치 물결이 끊이지 않았다.  
시는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만큼 단순한 회의가 아닌 외교·경제·문화적 역량을 십분 발휘했다.  
국격을 높이고 대한민국이 새롭게 도약하는 중요한 모멘텀(경제 주기가 상승하고 있을 때 일어나 더 상승할 것인지, 또는 주기가 하락하고 있을 때 일어나 더 하락할 것인지를 나타내는 지표)이 돼야 한다는 게 이유다.  
무엇보다 경주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역사문화 도시이자 국가 정체성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도시로 신라 천년 역사를 품고 있는 도시다.

한반도 최초의 통일문화로서 국제교역과 K-컬처의 출발지이자 불국사·석굴암 등 도시 전체가 세계문화유산으로 역사적 품격이 깊어, 세계 정상들에게 진정한 한국의 아름다움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곳을 강조했다.  
경주는 유치 3파전을 벌인 인천, 제주 중 유일한 지방중소도시이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경주는 APEC 교육장관회의, 세계물포럼, G20 재무장관회의, 세계유산도시기구 세계총회 등 다양한 국제행사의 성공 개최 비법이 풍부하다.  
올 6월 국제컨벤션협회(ICC) 발표 전국 기초단체 중 국제회의를 가장 많이 개최한 도시 1위로 이름을 올렸다.  
APEC의 포용적 성장과 지방화 시대 지방균형발전 가치 실현의 최적모델 역시 경주다.  
그간 멕시코 로스카보스(2002),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2012), 인도네시아 발리(2013), 베트남 다낭(2017) 등 역사·문화 중소도시의 성공 개최 사례를 보면 경주의 당위성은 차고 넘친다.  
경주는 정상 경호와 안전에 최적 요소다.  
보문관광단지, 회의장과 숙박, 전시장 등이 3분 이내 모든 인프라가 집적돼 있다.  
회의진행 및 정상경호의 최적이다.  
타 후보도시와 달리 바다와 접해있지 않고 보문관광단지 전체 1200만㎡를 민간인출입통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시민 불편 없이 완벽한 경호가 가능하다.  
2005년 APEC이 부산에서 개최될 때 한미정상회담은 보문관광단지에서 열렸음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  
숙박시설도 최적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  
경주화백컨벤션센터 회의장 주변 3km 이내에 5성급 호텔을 비롯, 45~250평 규모의 초특급 스위트룸 187실과 황룡원(43실), 교원드림센터(104실), 온평경주연수원(235실), 소노벨경주(417실), 한화콘도(395실), 컨심타워(555실) 등 럭셔리한 연수시설과 초특급 리조트가 103개소, 4463실의 정부대표단 수요대비 157% 객실을 보유하고 있다.  
반경 10km 이내에는 1333개소 13,265실을 확보하고 있다.  
경제대표, 미디어 관계자, 행사요원 등의 수요 대비 280% 객실 확보하고 있다.  
2005 부산 APEC 정상회의의 시 소요된 회의장 및 기능실 사용면적 2만6185㎡보다 2만8199㎡의 충분한 회의공간을 갖추고 있다.  
50분대의 김해·대구국제공항, 포항경주공항, 울산공항 4곳을 활용할 것으로 그 중 울산공항을 제외한 3개가 민간·군사공항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이 지난해 3월 30일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의 경주 유치를 위한 범시민추진위원회 출범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경주시 제공)

기상악화나 일정변경 등 상황변화에 유연한 대처가 가능하고 혼잡한 민간공항에 비해 통제와 관리가 용이하다.  
국인 의전과 경호 측면에서도 최적이다.  
최근 포항경주공항 국제선 부정기편 취항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해 경주 최단거리 공항에서 국제선 운항도 기대되고 있다.  
KTX·SRT 등 완벽한 교통망도 빼놓을 수 없다.  
경주는 영남권 산업벨트의 중심허브 도시다.  
대한민국 산업화를 일궈낸 성장축의 중심에 있어 대한민국 경제발전상을 공유할 수 있는 최적지다.  
경주의 한수원, 원전, 소형모듈원자로(SMR)와 포항(포스텍, 이차전지), 울산(완성차, 조선), 구미(반도체), 안동(바이오) 등으로 이어지는 산업 대동맥이 형성돼 있기 때문이다.  
APEC이 열리는 11월은 형형색색의 단풍 최절정기로 세계 정상과 영부인들이 한복을 입고 불국사, 동궁과 월지, 대릉원 등에서 찍은 사진이 전 세계에 소개된다면 그야말로 감동 드라마로

세계의 이목이 경주와 대한민국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9월 'APEC 경주유치 100만 서명운동'을 전개한 결과 불과 85일 만에 25만 경주인구보다 약 6배 많은 146만3874명이라는 많은 국민들의 지지와 성원 보여 줬다.  
경주가 APEC 정상회의의 최적지로 손색이 없고 국민적 공감대가 완성됐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APEC 유치로 국내·외 관광객 증가 등 생산유발효과가 1조8863억, 부가가치유발효과 8852억, 1만4438명의 취업유발효과를 비롯, 국제 MICE 관광도시 위상제고 등 경주의 미래 백년대계를 앞당길 귀중한 마중물(어떤 일의 밑바탕이나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주는 APEC 개최 효과가 국한될 수밖에 없는 광역도시가 아니라 국제회의의 인프라와 역량, 발전 가능성을 모두 갖춘 지방도시에 유치됐다.  
APEC의 이념적 가치를 실현하는 동시에 각료회의를 비롯한 200여 관련회의를 대구, 울산, 부산, 경남의 동남권 전체로 파급력을 극대화할 수 있어 지방화시대 국가균형발전에서도 매

우큰 의미가 있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APEC 최적의 인프라를 갖췄지만 경주가 유일한 중소도시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 불릴 만큼 여러 가지 불리한 여건 속에서 두 광역도시와 치열한 경쟁을 뚫고 유치에 성공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위대한 성과가 있기 까지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이철우 경북지사와 김석기 국회의원을 비롯해 모든 분들에게 감사사를 드린다"는 말도 아끼지 않았다.  
주시장은 "앞으로의 임무는 세밀하고 철저한 준비로 경주의 미래 백년대계를 앞당기고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리는 APEC 역사에 길이 남을 성공 롤모델(자기가 해야 할 일이나 임무 따위에서 본받을 만하거나 모범이 되는 대상)로 승화시키는 결실을 만들어내는 것이라며, 사·도민들이 다시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 APEC 성공 개최를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성용 기자  
윤용찬 기자

**강한 신문 대구광역시보** '독자의 가슴'까지 생각합니다.

창간 1996년 7월11일 등록번호 대구가 00016(일간) 누리집: www.dgy.co.kr 전자우편: dgynews@daum.net

발행인 김 영 속 | 편집인 김 성 용 | 부사장 조 여 은 | 편집국장 김 현 석

대구시 중구 태평로 286 (2층) 대표전화 053-253-0000 FAX 053-253-0041 광고접수 053-257-0000

대표	053-267-9000	경영지원국	053-267-5000	광고국	053-267-0800	문체부	053-253-0065
부사장	053-254-0500	기획조정실	053-267-0600	사회부	053-253-0060	지방부	053-253-0064
편집국장	053-257-0200	인원실	053-267-0700	정경부	053-253-0061	편집부	053-253-0063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외부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NO!**  
술잔을 비우셨다면, 운전석도 비워주세요.

국민 전석민님께서 제안한 슬로건입니다.

# 대구 종합

대구광역시보

2024년 6월 25일 화요일 3

## 군위군 고위직 공무원 대상 폭력예방교육

군위군청은 지난 21일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4대 폭력예방 통합교육을 실시하였다. 공공기관 소속 모든 직원은 매년 성희롱, 성매매 등 4대 폭력예방교육을 받아야 하며, 2021년부터 기관장

및 고위직은 맞춤형 별도 교육이 의무화되었다. 김향숙(한국양성평등진흥원) 전문강사의 강의로 4대폭력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대처방안과 역할, 사건발생시 고위직 역할 이해, 폭력없

는 세상 만들기를 위한 실천 방법 등을 고찰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진열 군수는 “건전한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고위직 공무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서로 존중하는 직장생활을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동성로에 대구·경북 대학생 모인다... ‘오픈캠퍼스’ 첫 공연

## 지역 대학 동아리 30팀 공연 ‘청년버스킹-오픈캠퍼스’ 펼쳐져

대구는 지난 4월 19일부터 11월 9일까지 매주 목·금·토요일 오후 7시에 동성로 28아트스퀘어를 중심으로 개최하고 있는 ‘2024 동성로 청년버스킹’ 중 지역 10개 대학의 음악·댄스 동아리가 참여하는 프로그램인 ‘오픈캠퍼스’의 첫 공연을 오는 27일 개최한다.

‘2024 동성로 청년버스킹’은 청년 중심의 공연을 통해 침체된 동성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 중 문화관광 분야 핵심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4월 19일 발대식을 시작으로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오픈캠퍼스’는 지역의 대학 동아리와 연계한 공연으로 음악·댄스 동아리 등 30팀이 10회 참여하는 프로그램이다.

상반기는 27일부터 7월 5일까지 진행되며,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 사업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심캠퍼스에 선정된 △경북대학교, △계명대학교, △대구대학교, △대구가톨릭대학

교, △세명문화대학교 등이 참여한다.

오후 7시에 시민참여 프로그램인 ‘오픈마이크’ 1시간 공연 후, 이어서 오후 8시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 각 대학의 3개 동아리팀이 댄스·밴드·보컬 등 젊은 열기가 가득한 버스킹을 선보인다.

이어 9월 5일(목)부터 13일(금)까지 펼쳐지는 하반기 공연의 참여 대학은 △영남대학교, △대구교육대학교, △보건대학교, △경일대학교, △대경대학교 등이다.

한편, 동성로 청년버스킹은 현재(6.25 기준)까지 전국에서 모인 청년예술가 50팀의 마술, 인디 음악, 클래식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이 총 60회 중 25회 펼쳐졌으며, 매회 동성로상점가상인회 후원으로 관객 10여 명 대상 경품을 제공해 호응도가 높으며, 평균 500여 명의 시민들이 관람하며 즐기고 있다.

배정식 대구광역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매주 열리는 버스킹 공연으로 동성로에 점점 활기가 더해지고 있다”며, “오픈캠퍼스 무대를 통해 지역 대학생들이 마음껏 젊음과 끼를 발산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여은 기자



## 수성구, 수성미래교육관(S-NEXT) 개관식 개최

수성구는 24일 대구스타디움 서편광장에 조성한 수성미래교육관(S-NEXT) 개관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 김대권 수성구청장, 전영태 수성구의회의장, 수성미래교육재단 이사장, 임현목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원장, 국립대구과학관 관장, 교육청 관계자, 학부모 대표 등이 참석했다.

개관식은 식전 뮤지컬 공연, 내빈 소개 및 축사, 교육관 비전·시설 소개, 개관 퍼포먼스 및 기념 촬영, 수성미래교육관 시설 관람 순으로 진행됐다.

수성미래교육관(S-NEXT)은 건축면적 253.17㎡, 연면적 647.76㎡의 지상 3층 건물로 최신 디지털 기술과 설비를 갖춘 교육 공간이다. 대구스타디움 활성화를 위해 2021년 기본 설계에 들어가 올해 1월 준공됐다.

생성형 인공지능(AI), 드론, 로봇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교육과정을 제공해 미래 교육 트렌드를 선도할 예정이다.

수성미래교육관은 3개의 전시·체험 공간과 옥상 휴식 공간으로 구성돼 있다.

1층 지능형전시실은 생성형 AI와 실감미디어 기술을 활용한 체험·전시 공간이다. 가상현실(VR)·인공지능(AI)을 접목한 다양한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고 개인이 제작한 디지털 결과물을 직접 가져갈 수도 있다.

2층 스마트강의실은 교구제 키트를 활용한 일일 체험교육과 정기 프로그램이 열린다. 전자칠판과 미디어월을 통한 실시간 상호 소통 교육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며 학생들이 다양한 교구를 대어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교구도서관을 함께 운영한다.

3층 실감미디어실은 4면으로 구성된 미디어월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전시와 공연이 이뤄지는 공간이다. 유네스코아시아태평양국제이해교육원(APEIU)로부터 세계시민-국제기구 체험관으로 지정받아 운영한다.

김대권 수성미래교육재단 이사장은 “수성미래교육관은 디지털 대전환에 맞맞춰 교육 모든 분야에 미래 기술을 융합하는 새로운 도전”이라며 “공간의 가변성이 핵심인 다목적 교육 공간으로써 미래 교육을 이끌 거점기관으로 키울 것”이라고 밝혔다.

수성미래교육관의 체험·교육 프로그램은 온라인 예약을 통해 모든 시민과 학생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평일에는 학교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단체 프로그램, 주말에는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개인 프로그램으로 나눠 운영하며 오는 8월 첫 문을 연다.

## 군위군, 군위는 대구로! 군부대는 군위로!

“군위는 대구데이~ 군부대는 군위데이~”



군위군은 지난 21일부터 22일까지 양일간, 대구 수성못 상화동산에서 열린 ‘대구데이 페스티벌’ 행사에서 대구 군부대 이전 홍보활동을 펼쳤다.

올해로 6회를 맞는 ‘대구데이 페스티벌’은 대구의 정신은 물론, 역사, 문화 등을 담아낸 행사로 자리 잡으면서 시민들의 공감을 이끌어낸 축제로 호평을 받고 있다. 또한 “더 큰 데9”라는 주제로 열린 올해 행사에는 기존 8개 구·군에서 2023년 7월 1일 군위군의 편입으로 9개 구·군이 된 것을 알리는 자리를 가졌으며 놀거리, 먹거리 등 관람객들에게 다양한 즐길거리를 제공했다.

이날 군위군은 군위군 홍보부스를 운영하여 지역 농특산물 홍보, 홍보동영상 시청, 부채, 장바구니, 풍선 등을 제공하여 군위군을 알리는 시간을 가졌으며, 대구데이 페스티벌 취지에 맞게 “군위는 대구로! 군부대는 군위로!”라는 문

구와 함께 행사장을 찾은 관람객 등을 대상으로 포토존 운영 및 SNS 이벤트를 병행하여 군위군이 군부대 이전 최적지임을 알리며 군부대 이전 홍보활동을 펼쳤다.

군위군은 5개 이전 후보 지자체 중 유일하게 이전 후보지(우보) 주민들이 먼저 지지 선언을 한 지자체이다. 또한 같은 광역지자체인 대구 내에 위치하여 철차 간소화와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더불어 군부대 이전 후보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등 이미 군부대 이전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이 군위군의 강점으로, 이를 바탕으로 군위군은 대구 시민들을 대상으로 군부대 이전 사업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김진열 군수는 “대구 시민분들께서 대구 군부대 군위군 이전에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에 감사드립니다”면서 “군부대가 군위로 오면 그 혜택을 보는 것은 이전 후보지인 군위군만이 아니라 대구시 전체다. 대구 미래 50년, 100년을 위해 꼭 군부대 이전 사업을 성공시키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군위군은 8개 읍·면을 순회하며 이장회의, 삼국유사 청춘대학 등 주민들이 모이는 곳에 직접 방문하여 대구 군부대 이전 관련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여 지역 내 대구 군부대 유치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으며 더불어 대구데이 페스티벌 등 대구시 주최 행사에 지속적으로 참여해 대구 시민들과도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계획이다.

## 북구청, 구암동 고분군 봉분 정비 완료

### 사적 지정 이후 첫 번째 정비 사례

북구청은 대구 구암동 고분군 56, 58호분 정비를 마치고 일반인에게 개방한다.

국가지정유산 사적으로 지정된 지 5년 만에 관계 기관과 전문가의 철저한 고증을 거쳐 봉분을 정비한 첫 사례이다.

사적 대구 구암동 고분군은 지난 2018년 8월 국가지정유산(사적)으로 지정된 이후 북구청에서는 56호분 재발굴조사를 시작으로 연접한 58호분에 대한 정밀발굴조사를 추진했다.

발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사기관, 고고학 및 국가유산 보수 전문가와 함께 봉분 정비는 봉분 정비 실시계획을 진행하고 이후 국가유산청의 승인을 받은 뒤 2023년 6월부터 본격적인 봉분 정비를 시작하였으며 공사 착공 후 1년 만에 그 모습을 일반에 공개했다. 앞서 북구청에서는 2019년 구암동 고분군 56호분에 대해 1975년 최초 발굴 이래 45년 만에 재발굴을 실시한 결과, 당

초조사 결과보다 무덤의 크기가 더 큰 점, 덧댄 무덤 4기의 존재를 확인했다. 또한 56호분과 연접한 58호분에 대해서도 정밀발굴조사를 실시하여 구암동 고분군 축조방식의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는 구획석열의 구조를 확인하는 등 봉분 복원을 위한 고고학적 기초자료를 확보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발굴조사를 담당한 (재)대동문화재연구원, 발굴조사 시 현장 자문을 맡은 고고학 전문가 및 국가유산청의 국가유산 보수 전문가와 함께 봉분 복원을 위한 실시계획을 추진했고 2022년 11월 국가유산청의 승인을 득한 후 지난 2023년 6월 본격적인 정비공사에 들어가 약 1년여 만인 2024년 6월 봉분 정비를 완료했다.

배광식 북구청장은 “구암동 고분군 56, 58호분 봉분 정비사업은 발굴조사 결과를 토대로 철저한 검증 등을 통한 구암동 고분군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한 첫걸음이며 도심속에서 역사를 느끼고 배우는 공간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달성군, 나라를 위한 송고한 헌신... 끝까지 보답

### 달성군 6·25 참전유공자회 가족사진 전달 및 오찬

달성군은 지난 21일 6·25참전유공자회들과 ‘가족사진 전달 및 오찬’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달식에는 6·25전쟁 호국영웅 서른다섯 분이 참석했으며, 9개 보훈단체회장, 최재훈 달성군수, 김은영 군의원과 남명숙 달성군여성단체협의회장, 송종구 달성군자원봉사센터장 등 기관사회단체장 20여 명이 6·25전쟁 호국영웅에게 고마움을 전하기 위해 자리했다.

달성군은 6·25전쟁 74주년을 맞아 참전 호국영웅들에게 뜻깊은 추억을 선사하고자 사진 촬영 행사를 마련했다.



이번 행사는 가족사진 촬영을 희망하는 호국영웅 가정 24곳을 방문해 가족사진을 촬영한 후 액자에 담아 전달하는 것으로 진행됐으며, 촬영팀 역시 헤어메이크업 전문가 및 사진작가로 구성해 특별함을 더했다.

## 수성구, 청소년안전망 실무위원회 2차 정기회의

수성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지난 20일 번 어도서관 5층 대강의실에서 2024년 ‘수성구 청소년안전망(CYS-Net) 실무위원회’ 2차 정기회의를 가졌다.

수성구 청소년안전망 실무위원회는 청소년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해 수성구청, 수성경찰서, 대구해바라기센터, 대구아동보호전문기관, 수성구가족센터, 대구고용복지플러스센터 등 21개 전문기관으로 구성된 위원회다. 올해 대구성취취회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가 신규 기관으로 위촉됐다.



이날 회의에서 수성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개발 중인 고위기청소년 가족상담사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공유하고, 위기청소년 예방 및 지원

특히 서류공원 등에서의 야외촬영, 정수사진 촬영, 전우들과의 단체 사진 촬영 등을 원하시는 경우 별도로 촬영을 진행하며 보훈대상자들의 원하는 바를 모두 반영해드려 행사 만족도가 높았다.

거기에 더해 달성군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자들이 손수 제작한 천연비누와 도어벨 50세트를 6·25참전유공자회 김영철 달성군지회장에게 전달하여 행사를 풍성하게 만들었으며, 달성군여성단체협의회 임원 일동은 떡, 과일, 음료를 정성껏 준비해 오찬과 같이 드실 수 있도록 봉사활동을 펼쳤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자유와 평화, 그리고 민주주의에 빛나는 자랑스러운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6·25전쟁 호국영웅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뜻을 전한다”며 “나라를 지키기 위해 희생·헌신한 영웅들과 가족들이 예우받는 달성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최근 자살과 자해를 경험하는 고위기청소년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청소년안전망 차원에서의 조기 발굴, 실질적인 개입 등 대응책도 다뤘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수성구 청소년안전망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해 청소년들이 건강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3년에 설립된 수성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안전망 사업 운영, 개인 및 집단상담, 1388 청소년 전화, 긴급 구조 및 일시 보호 등 다양한 맞춤형 심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제36회 119소방정책 콘퍼런스’ 대회 개최

제36회 119소방 정책 콘퍼런스 대회가 지난 21일 경북도청 다목적홀에서 열렸다. 119소방정책 콘퍼런스는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소방 정책 개발과 각종 재난 발생 시 대응 역

량을 강화하기 위해 1982년부터 매년 개최하는 전국 최대 규모 소방 학술 대회다. 대회는 도내 21개 소방서 중 1차 심사를 통과한 포항 북부, 김천, 구미, 청송, 예천 등 5개 소방서가

발표대회에 참가해 최종 순위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각 소방서가 열띤 경쟁을 펼친 결과 재난 현장 소방 차량 지휘망 구축을 주제로 ‘드론과 IoT 기반 소방 차량 메카시스템(FTPS) 제안’을 발표한 구미 소방서가 영예의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 장마 코앞 예천 이재민 어찌나... 예천군 지원 나서

## 김학동 예천군수, 불편함 없이 생활하도록 세심한 지원 최선

장마가 코앞이다. 지난해 7월 유례없는 폭우로 경북 북부권의 예천·영주·봉화·문경이 축대밭이 됐다. 수십명이 사망·실종됐다. 자연이 준 엄청난 재앙에 주민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빼앗겼다. 막대한 재산 피해도 발생했다. 이재민들은 지금도 바깥생활을 하고 있다. 또 불어닥칠 폭우에 근심만 늘어간다. 지난해 7월 집중 호우로 산사태가 나 15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됐던 곳이 예천이다. 이재민들은 1년째 컨테이너에서 지내고 있지만, 복구 작업은 더디다. 곧 시작되는 장마 소식이 어느 곳보다 더 두렵다. 예천군 발랑리 마을의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다. 수마가 활취고 간 하천은 아직도 복구 중이다. 산사태를 막을 사방벽은 9곳 가운데 2곳만 완성됐고, 피해 복구율은 70%에 불과하다. 때문에 예천군은 지난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의 주거 안정과 생활편의를 위해 클루프와 방범장을 설치하는 등 다양한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당시 31가구의 이재민이 주거 지원을 받았다. 그중 임시조립주택 29가구, LH 임대주택에 2가구가 입주했다. 올 6월 기준 3가구 복귀해 임시조립주택에 22가구, LH 임대주택에 1가구가 생활하고 있다.

예천군은 이재민들의 입주와 동시에 유관기관 협력해 상수도 요금 감면, 전기요금과 무료 유선방송을 지원했다. 심리지원서비스와 소방, 가스, 전기 등 주변 시설물을 지속적으로 점검, 이재민들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해 겨울에는 강력한 한파로 인한 상수도 동파 방지를 위해 임시조립주택을 수시로 방문, 동파 방지 대책을 안내하고 점검했다. 빙판길 안전사고를 우려해 조립주택 주변에 연화깔개를 비치하는 등 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이재민들의 외부인 침입에 불안감을 없애는 방범장을 설치했다. 예년보다 폭염이 우려되는 금년 여름을 대비해 쿨루프 시공을 완료, 에어컨 작동 여부도 신속하게 점검했다. 쿨루프(Cool Roof)는 주택 지붕에 특수도료(페인트)를 칠해 건물에 열기가 축적되는 것을 막는 효과가 있다.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기 전 쿨루프 시공을 완료, 이재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은 매달 임시조립주택을 방문해 이재민의 불편사항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예천보건소는 이재민들의 트라우마 극복을 위해 매월 임시주택을 방문, 재난심리회복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등 이재민들의 생활안정과 일상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김학동 예천군수는 “지난해 호우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이 임시주택에 거주하는 동안 안정을 찾고 불편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세심한 지원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명주 기자



**자유총연맹 문경시지회, 주먹밥 나누기 행사** 한국자유총연맹 문경시지회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지난 23일 점촌전통시장 일대에서 주먹밥 나누기 행사를 했다. 행사는 6·25전쟁의 아픔을 되새기고 국가 안보 의식을 강화, 전후세대에 전쟁의 참상과 우리 민족의 현실을 돌아보게 하여 호국보훈의 정신을 새롭게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주말을 맞아 전통시장을 찾아 장을 보거나 왕래하는 많은 문경시민들이 이번 행사에 참여, 전쟁 당시 먹었던 주먹밥을 나눠줬다. 신선이 한국자유총연맹 문경시 여성회장은 “앞으로도 호국정신과 안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사진=문경시 제공)

## 계명문화대, 우즈베키스탄 TIAME 대학 초청연수 성료

### 교수들 전공역량 강화 한 몫, 고등직업교육 역량강화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책 마련

계명문화대가 마련한 우즈베키스탄 TIAME 대학교 교수 및 관리자 초청연수가 마무리됐다. 지난 10~14일까지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관계농업기계화대학교(TIAME) 바카디르(Bakhadir Mirzaev) 총장 등 교수 및 관리자 6명을 초청, 연수를 했다. 초청연수는 교육부 2024 국제협력선도대학 사업인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관계농업기계화대학교(TIAME) 메카트로닉스 테크니쿰 교육역량강화사업’ 일환으로 마련됐다. 연수는 우즈베키스탄 TIAME 대학교의 전문 학사과정인 메카트로닉스 학과 개설과 과정 운영에 필요한 교수들의 전공역량 강화에도 한 몫 한다. 계명문화대가 계명대와 손잡고 협력, 산업수



사진은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관계농업기계화대학교(TIAME) 교수 및 관리자 초청연수 모습

요맞춤형 커리큘럼 및 교재개발과 신기술 수업 적용방안을 전수하고 관련 산업체를 방문하는 일정으로 진행됐다. TIAME 대학교 관계자들은 지난 10일 계명문화대에서 오리엔테이션과 환영식을 시작으로 막을 열었다. 우즈베키스탄 고등직업교육기관의 교수학습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디지털교육혁신센터(DEISC) 신설을 위해 한국학술정보원(KERIS)과 계명대 교육혁신처를 방문, 관련 기술들을 연구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계명문화대는 연수에서 TIAME 대학교 관계

자들이 선진 교육 방법을 배우고 계명문화대학교와 지역 산업체 등의 네트워크를 통해 상호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해 큰 호응을 얻었다. TIAME 대학교 바카디르(Bakhadir Mirzaev) 총장은 “앞으로 계명문화대와의 지속적인 협력으로 우즈베키스탄의 산업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은 물론, 상호 발전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계명문화대는 올 2월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2024 국제협력 선도대학 육성 지원사업’에 선정됐다. 2029년까지 5년간 19억 4000만원(국고지원 17억) 예산으로 우즈베키스탄 TIAME 대학교에 메카트로닉스 학과를 개설한다. 지역 사회 개발 프로그램으로 우즈베키스탄 테크니쿰의 디지털 교육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TIAME 대학교 내 디지털교육혁신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등 고등직업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과 지원책을 마련, 실행하고 있다. 김성용 기자

## 농기원, ‘건강팍케어’ 치유농업 일감 확대 운영

### 신체·심리적 측면 모두 긍정 변화, 협력기관 연계 치유 농업 확산



사진은 ‘건강팍케어’ 치유농업 프로그램에 참여한 모습

경북농업기술원은 ‘건강팍케어’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4개 시군으로 확대 운영한다. 협력 기관 연계 치유농업 모델 확산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와 협력해 추진한 사업이다. ‘건강팍케어’는 2022년 농업기술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가 지역사회 건강증진과 치유농업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후 추진하고 있는 협력사업이다. 지난 2년간의 ‘건강팍케어’ 운영 성과 분석 결과 스트레스 지수 측정기준이 되는 코르티솔 호르몬 수치가 우울감이 감소하는 등 참가자들의 신체적, 심리적 측면에서 모두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올해 4개 시군(포항, 안동, 상주, 성주)으로 확대해 당뇨, 고혈압 등 만성질환자 60명을 대상으로 시군보훈공단지사에서 운영하는 ‘만성질환 건강 교실’과 연계해 진행한다. 프로그램은 5~9월까지 도내 치유 농장과 시군건강보훈공단지사에서 진행된다. 마음팍 그리기, 농작물 수확 및 팍파티, 도자기 만들기 등 치유농업 프로그램과 질한·영양관리, 운동관리 등 건강개선 프로그램으로 짜여졌다. 농업 활동을 통한 규칙적인 신체운동과 생활 습관 개선을 통해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을 개선한다. 경북농업기술원은 ‘경북도 치유농업센터’를 전국 최초 치유농업 거점기관으로 치유농장 장업을 위한 컨설팅과 농장 품질관리, 전문인력양성 등 지역의 치유농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다양한 분야의 기관과 협력해 치유 서비스의 범위를 확장, 이를 통해 더 많은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치유농업과 관련해 협력하려는 기관이나 관심 있는 단체는 경북도 치유농업센터 (053-320-0256)로 연락하면 관련 정보와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조영숙 경북농업기술원장은 “사업을 통해 치유농업을 확산, 향후 다양한 수요자에 대한 맞춤형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개발해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용 기자

## 경북교육청,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 개최

경북교육청은 24일 분청 회의실에서 ‘경북도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 위원회’를 개최했다. 자율형 공립고 2·0 신형학교 9교와 자율학교 지정 신형학교 13교를 심의, 종료 예정인 자율학교는 공모를 통해 추가 지정기로 의결했다. 이날 회의의 주요 안건은 △자율형 공립고 2·0 2차 추가신형 학교 심의 △자율학교 신규·연장

지정 신형학교 심의 △2025년 종료 예정 자율학교 대상 공모 시행에 대한 의결 등이다. 위원회는 올해 교육부가 새로 추진하는 자율형 공립고 2·0 2차 추가신형에 도내 학교 9교가 제출한 신청서를 자세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후 9교 모두를 교육부에 신청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자율학교 신규·연장 지정 신형학교인 고교 13교(전국 단위 모집 일반고 6교, 협약형 특성화고 1교, 마이스터고 6교)의 연장 신청서와 운영평가보고서 등을 검토한 후 신청학교 모두 연장 지정에 적합하다고 의결했다. 김성용 기자

## iM뱅크, 동성로지점 오후 7시까지 운영

### 입·출금 각종 제신고 은행업무 처리 가능

iM뱅크는 일상 속 금융서비스 확대를 위해 영업시간 연장 특화점포인 ‘Time+뱅크’ 점포를 운영하고 시행 1호점으로 대구 동성로지점을 오후 7시까지 운영한다. ‘시간을 더해 영업시간을 연장하는’ 의미를 담은 ‘Time+뱅크’는 기존 영업시간 마감시간인 오후 4시에 3시간을 연장해 오후 7시까지 지점을 운영한다. 오후 7시까지 운영되는 특화점포 1호점은 대구 중심에 위치한 동성로지점으로 지난 21일부터 본격 연장 운영을 했다. ‘Time+뱅크’는 오전 9~오후 4시까지 기존과 동일하게 은행업무 처리가 가능하고 연장 시간인 오후 4~오후 7시까지는 금융상담업무를 중심으로 입·출금, 각종 제신고 등의 은행업무 처리가 가능하다. 일부 업무의 제한이 있으나 보다 자세한 내용은 iM뱅크 누리집에서 확인해야 한다. 시중은행 전환을 계기로 금융 접근성을 더욱



사진은 iM뱅크 동성로지점 오후 7시까지 운영 모습

향상시키고자 하는 iM뱅크는 다양한 형태의 점포를 통해 전국 고객과의 접점을 늘린다. ‘Time+뱅크’를 비롯해 찾아가는 이동점포, 편의점 제휴점포, 5일장 디지털점포, 시니어 특화점포 등 금융편의 향상을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 중으로 기존 점포와 다른 새로운 형태의 점포도 입을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황병우 은행장은 “‘Time+뱅크’가 고객 편의를 제고하고 나아가 도심 경제 활성화에 보다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미경 기자

## 상주시, 반찬 지원 특화사업 복지사각지대 복지자원 발굴

상주시 동문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21일 지역특화사업인 ‘천천천 Happy 동문동’에 참여해 관내 복지 취약계층 20가구에 대해 반찬 및 식료품을 전달하고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따뜻한 시간을 가졌다. 행사는 경제·신체적 어려움으로 스스로 음식을 조리하기 힘든 관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협의회 위원들이 직접 반찬을 조리하고 각 가정으로 전달했다. 안부 확인 및 정서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함께 모아 행복금고 연합모금액을 재원으로 시행했다. 동문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의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복지서비스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구성된 조직으로, 주민이 직접 참여, 지역의 복지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지역 복지 증진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세호 동문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은 “직접 반찬을 조리하기 어려운 이웃들에게 반찬 걱정을 덜어드리고, 건강을 챙겨드릴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 앞으로도 지역 특화사업 활성화 및 지역 내 복지문제 해결 등에 있어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제25회 경북도지사기 생활체육 검도대회 성료

제25회 경북지사기 생활체육 검도대회가 지난 22,23일 이틀간 경주 실내체육관에서 열렸다. 대회는 도내 15개 시·군에서 1000여 명의

검도인이 참가, 그동안 틈틈이 다져왔던 기량을 확인하고 검도인 간의 친목을 다졌다. 시·군 통합대항전으로 개인전 16종별, 단체전 11종별로 초등부부터 장년부까지 총

27개 종별로 나눠 토너먼트 방식으로 대회가 펼쳐졌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스포츠를 통해 체력과 건강을 증진하고 삶의 활력소를 충전하시는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경주가 스포츠 메카로 발돋움하는데 커다란 건



'2024 경주 술술페스티벌' 인산인해...대박행진

경주 보문단지, 맥주 '음악'으로 힐링타임 1만8000명 관광객...



경주의 무더위를 시원하게 날려버린 '경주 술술페스티벌'을 보러온 관광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축제는 지난 21~23.3일간 열렸는데 1만8000명이 찾았다.

올해는 처음으로 날씨와 상관없이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야외가 아닌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 1층 실내 전시장에서 열렸다.

페이스 페인팅, 캐리커처, 포토존은 물론 대형 젠가 게임 등의 재미요소를 더해 가족단위 방문객을 유도했다.

전국 각 지역의 특색 있는 12곳의 유명 수제 맥주 브루어리(양조장) 업체들은 100여 종의 수제맥주맛을 느낄 수 있게 했다.

산미구엘, 빅웨이브골든에일, 텔리리움 등 수입 맥주존과 경주법주, 흥삼명주, 민주술도가

(주) 등 전통주존도 함께 운영돼 참석자들은 다양한 주류 라인업을 한껏 즐겼다.

축제에 참가한 한 방문객은 "지난해 보다 맥주 종류가 다양해서 맥주 마니아인 저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선물은 없다"며 "특히 이번 축제는 실내에서 개최돼 낮 시간 동안 시원하고

쾌적하게 보내 좋았다"고 말했다.

주류와 함께 즐길 수 있는 고구마스틱, 닭강정, 큐브스테이크, 새우튀김, 핫도그 등의 13곳 푸드페이팅은 합리적인 가격대로 축제의 맛을 한층 더했다.

축제기간 동안 매일 무대에서는 보컬, 밴드와 디제잉(EDM) 등 여러 장르 공연이 펼쳐져 관객들은 음악에 맞춰 춤을 추며 환호했다.

곡이 끝날 때마다 박수갈채를 보냈다.

시는 경주역, 고속·시외버스터미널, 실내체육관, 황리단길, 동경주 등 주요 거점지와 HICO를 연결하는 셔틀버스를 운영해 관광객과 시민들이 편리하게 행사장을 왕래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주낙영 시장은 "그간 황리단길, 대명원 등 시내권에 비해 한산했던 보문단지가 모처럼 이번 페스티벌로 활기를 되찾았다. 앞으로도 국내 관광 번창 명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다채로운 관광 상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365일 관광객들이 북적이는 경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주 지역 교통사고 최근 10년 간 반으로 줄었다

경주시, 적극적인 교통정책 교통사고 사망자 수 줄인다

경주지역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최근 10년 간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경주에서 1176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42명이 숨지고 1670명이 다쳤다.

2013년 교통사고 통계보다 사고 건수는 45.9%, 사망자 수는 48.8%, 부상자 수는 51.7% 각각 감소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 기준 경주지역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13년 82명으로 최근 10년 간 최다 사망자 수를 기록했다.

연도별 사망자 수는 △2014년 69명 △2015년 68명 △2016년 58명 △2017년 43명 △2018년 45명 △2019년 35명 △2020년 30명 △2021년 38명 △2022년 35명 △2023년 42명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교통사고 건수와 부상자 수도 현저히 감소했다.

2013년 2174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3458명이 다친 반면, 2023년 1176건이 발생해 1670명이 다쳐 사고 건수는 절반 가까이, 부상자 수는 절반 넘게 줄었다.

연도별 교통사고 건수와 부상자 수는 △2014년 2123건 3468명 △2015년 2057건 3339명 △2016년 1715건 2733명 △2017년 1675건 2599명 △2018년 1626건 2529명 △2019년 1741건 2714명 △2020년 1312건 1914명 △2021년 1259건 1909명 △2022년 1206건 1810명으로 집계됐다.

교통사고 건수는 경찰에 신고·접수된 사고 기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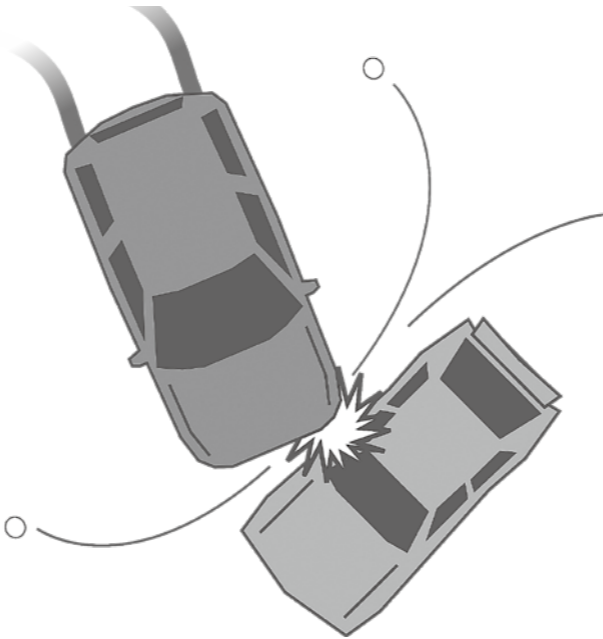
부상자 수는 중상(3주 이상), 경상(5일~3주 미만), 부상신고(5일 미만)를 합한 숫자다.

보행자 사망자 수도 2013년 22명에서 2023년 8명으로 눈에 띄게 감소했다.

감소세는 경주경찰서와 함께 어린이와 노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맞춤형 교통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온 결과다.

초등학교 주변 횡단보도에 노란 신호등을 설치하는 등 등·하굣길 어린이 안전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시설 개선에 역점을 두고 진행해 왔다.

어르신 안전을 위해 지역 주요 거점 횡단보도마다 고휘도 LED 투광등을 설치하는 등



고령자 보행사고 예방에도 행정력을 집중해 왔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유관기관과 시민들이 한뜻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인 데 따른 긍정적인 결과"라며 "경주시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교통정책으로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현저히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용찬 기자/사진 경주시제공

경주 황성공원·화랑마을 야외 물놀이장 개장

수질·안전관리에 최선 동시 입장인원 200명제한

경주시가 여름철 맞아 시민들에게 시원하고 쾌적한 쉼터를 제공하기 위해 '황성공원 물놀이장'을 새달 3일 개장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올여름도 무더위를 피해 시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을 보내길 바란다"며 "안전하고 즐겁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수질 및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운영기간은 8월 31일까지 52일간이며,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매주 월요일은 시설 청소 및 보수작업 등으로 인해 휴무일로 운영하지 않는다. 이용 대상은 유아(만 3세 이상)부터 초등학생까지다.

운영시간은 △10시 30분 ~ 12시 30분(1부) △13시 ~ 15시(2부) △15시 30분 ~ 17시(3부)이다.

수질관리와 안전을 위해 각 부별로 동시 입장 인원은 200명으로 제한한다. 5명의 안전요원과 2명의 간호사를 상시 배치해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나선다.

2019년 개장한 황성공원 물놀이장은 코로나로 인한 2021년, 2022년을 제외하면 매년 1만여 이상 아이들을 포함한 시민들이 여름철 무



지난해 어린이들이 황성공원 야외 물놀이장을 찾아 무더위를 식히고 있다.

더위 휴식을 즐기는 여가공간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시는 새달 9~8월 25일까지 화랑마을 문무야외수영장도 운영한다.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입장 마감 오후 4시)까지고, 13시~14시에는 수질 정화 및 정비를 위해 입장 및 이용이 제한된다.

입장료는 청소년 3000원, 성인 4000원이고, 결제는 카드만 가능하다.

입장권인 밴드티켓 구매는 당일 선착순으로 현장에 있는 사람에게 판매되며 사전 예약은 불가하다. 이용 인원은 동시입장인원 200명이다. 결제 시(입장 1개) 소정의 상품을 제공하는 행사도 추진된다. 자세한 이용수칙 및 주의사항 등은 화랑마을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행복한 시민 자랑스러운 대구

쾌적하고 행복한 도시

살고 싶은

도전하는 청년

활기찬 노후

꿈을 키우는 아이

행복한 가정

내게 딱 맞는 인구정책으로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영덕 영양  
청송 청도  
울릉 울진

# 영양에 부는 스포츠 열풍... 동호인 역량 강화



## 영덕군, 청소년복지 실무위원 회의

영덕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지난 20일 포항 내연산 치유숲에서 2024 청소년안전망 2차 청소년복지실무위원회 회의를 가졌다. 청소년복지실무위원회는 위기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 관련 연계기관의 실무책임자 또는 실무담당자로 구성된 네트워크다.

회의에선 경계선 지능 청소년, 중도 입국 청소년, 비장애 위기 청소년 등 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을 조기 발굴하고 개입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한 논의가 이뤄졌다. 최태환 영덕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소장은 "지역 청소년들의 위기를 조기에 예방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청송군, 행복한 보급자리 만들기

청송군 부남면새마을협의회는 지난 6월 21일 새마을 지도자 등 30여 명이 참석, 어려운 이웃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행복한 보급자리 만들기' 활동을 했다.

'행복한 보급자리 만들기' 사업은 생활이 어려운 이웃을 찾아 주거공간을 개선해 주는 복지공동체 사업이다.

이날 도움을 받은 어르신은 "생활환경이 좋지 않아 불편함이 많았는데, 더운 날씨에도 땀을 흘리며 도와주시는 봉사자 분들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함께하는 부남면을 만드는 데 힘써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 청도군, '카페문화 체험' 행사

청도군 매전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21일 위원 및 어르신 20여 명과 함께 카페문화 체험 행사를 가졌다.

행사는 '카페 소담'의 후원으로 매전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정서적 안정 및 삶의 활력 증진을 위해 추진됐다.

평소에 경험하지 못한 카페문화 체험을 통해 어르신들의 열띤 호응을 얻었다.

## 37회 영양군수기 축구대회 생활체육 댄스스포츠 대회

영양에 스포츠 대회가 한창이다. 제37회 영양군수기 축구대회가 지난 22일 영양공설운동장 및 축구경기장에서 열렸다. 대회는 영양군 축구 동호인 약 100명이 참가했다.

6개 읍·면에서 각각 팀을 이뤄 출전, 경기를 했다. 경기 결과 우승 영양읍, 준우승 청기면, 3위 일월면 순으로 차지했다.

영양군은 매년 영양군수기 축구대회를 개최하여 영양군 6개 읍·면 축구 동호인의 역량 강화와 화합을 꾀하고 있다.

## 청도군, '꿈 찾아 길을 걷는 사람들' 인기

청도군가족센터는 지난 21일 청도군 관내 결혼이민자 여성 20여 명과 함께 청도군청을 방문하여 결혼이민자 정착단계별 지원사업 "꿈을 찾아 길을 걷는 사람들"을 진행했다.

결혼이민자 정착단계별 지원사업은 결혼이민자들을 대상으로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고 삶에 대한 사전 준비를 통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결혼이민자들이 청도 지역의 기관 중 가장 많이 방문하고 어려움을 겪는 청도군청 민원실을 찾아 업무를 직접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프로그램 참여자 중 김모씨는 "민원실 방문 시 한국어가 서툴러 항상 남편이 대신해 주었는데 이번을 기회로 시로봇을 이용해 베트남어로 언어를 선택, 쉽게 민원을 신청할 수 있었다. 다양한 나라의 언어인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이 있어 다른 나라의 친구들도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을 거 같다"라며 소감을 밝혔다.

송근진 센터장은 "정착단계별 프로그램을 통하여 결혼이민자들이 하류층 지역 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기회가 되고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 울릉군, 2024 제2회 LOVE 독도 페스티벌 개최

'2024 러브독도 페스티벌'이 얼마전 울릉한마음회관 및 울릉도 일대에서 열렸다.

행사는 울릉군 청소년(초·중·고)들을 위한 아카데미와 울릉군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가야금공연, 댄스 공연 및 난버벌 왕갈매기쇼로 구성됐다.

울릉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독한 최강야구 정근우 선수와 허일상 여자국가대표 코치가 함께하는 '야구교실', 풋살 축구국가대표 최용덕 감독이 함께하는 '축구교실', 배우 윤서현이 함께하는 '연기교실', 울릉도 출신 걸그룹 멤버인 은유리가 직접 K-POP 댄스를 지도하는 '댄스교실', 농구스타 박영석이 함께하는 '농구교실'이 열려 큰 호응을 받았다.

## 청송군, 군립청송야생미술관 기획전시회

### '야생 이원좌 화백 소장 작품 공개전'

청송군이 마련한 '야생 이원좌 화백 소장 작품 공개전' 기획전시회가 새달 21일까지 군립청송야생미술관에서 열린다.

고(故) 야생 이원좌 화백은 청송 출신이다. 우리나라 대표 한국화가로서 초대형 실경산수화 '청량대운도(46x6.7m)' 등 많은 작품을 남겨 한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2005년에는 고향인 청송에서 군립청송야생미술관이 개관하자 초대관장에 역임, 지역 미술 발전을 위해 온 힘을 기울인 청송의 대표적인 문화예술인이다.

전시회는 용공사지도, 성산아트홀송 등 야생 화백이 생전에 전국 각지를 다니면서 보았던 우리나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 전국 동호인 축구대회 등 매년 전국 단위 축구대회 유치로 영양군 축구 발전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참가 선수단 모두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마음껏 펼치, 이번 대회가 영양군의 축구 동호인이 서로 소통하며 화합하는 자



리가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지난 23일에는 제11회 경북지사기 생활체육 댄스스포츠대회가 열렸다.

대회는 영양군민회관에서 열렸는데 경북 8개 시군 279명이 참가했다. 대회는 경북도 댄스스포츠연맹이 주최, 영양군

체육회가 주관했다. 경기 결과 상주시가 통합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고령군 준우승, 영주시 3위, 장려상은 경주시가 차지했다.

최근 전국의 많은 동호인들에게 각광받는 생활체육 종목인 댄스스포츠는 스포츠적 특성에 무용과 음악 그리고 연극적 요소가 함께 접목된 스포츠다.

정신적 긴장과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신체적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건전한 스포츠로 다양한 연령층에서 인기를 얻고 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대회 참가를 위해 영양군을 방문하신 선수단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댄스스포츠의 발전을 위해서 동호인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권윤동 기자



## 오십천어린이집 원아들, 영덕군청 방문

영덕군 오십천어린이집(원장 유정숙) 원아 34명이 '우리 동네 공공기관 방문하는 날' 행사를 맞아 인솔 교사와 함께 영덕군청사를 방문했다. 어린이들은 김광열 영덕군수의 집무실을 방문, 김 군수와 만남의 시간을 갖고 '일일 군수'를 체험했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방문한 어린이들에게 "군청에 있는 많은 직원은 모두 여러분과 가족들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다. 그만큼 여러분은 소중한 기쁨과 건강하게 자라길 바란다"고 응원했다. 사진은 오십천어린이집 원아들과 교사들이 영덕군청사를 방문해 김광열 영덕군수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영덕군 제공>

#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확산 주민 건강 위협

## 울진군, 아이 감기 5일 이상 열이 나거나 밤에 기침 나면 소아과 의사 찾아 상담 권유

코로나19 엔데믹 선언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호흡기 감염병이 기승을 부려 군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소아청소년을 중심으로 빠르게 번지고 있다.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은 세균에 의해 유발, 주로 5-9세의 아이들에게서 잘 발생한다.

초기에는 경미한 감기 증상을 보이지만 중증으로 진행될 경우 치료가 복잡하며 입원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의 가장 흔한 증상으로는 발열, 기침기래와 같은 감기 비슷한 전신 증상이

다. 38~40도 사이의 고열 등 감기와 매우 비슷한 증상을 보이는데, 3~4일이면 회복되는 감기 증상과 달리 증상이 오래 이어진다.

경우에 따른 증상 없이 열만 보이는 등 비전형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울진의료원은 소아입원병동을 가동,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병행하고 있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2명(안중구 과장, 이상우 과장)이 밤낮으로 상주 진료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소아진료 중단 및 운영 축소, 전공의 지원율이 감소하는 추세에 이 같은 행보는 군민, 소아청소년을 자녀로 둔 보호자에게는 반가운 소식이다.

환자 보호자 A씨는 "울진 같은 의료취약지에서 진료 및 입원 치료받을 수 있어서 다행이다. 요즘 같은 시기에 공공병원의 중요성을 더욱 실감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안중구 소아청소년과 과장은 "마이코플라즈마는 비발 전파이기 때문에 걸린 사람과 주변인이 모두 마스크를 쓴다면 감염을 최소화할 수 있고, 일반적인 손 씻기 등 예방수칙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이의 감기가 5일 이상 열이 나거나 밤에 기침이 나면 소아과 의사를 찾아 상담할 것을 권한다"라고 당부했다.

울진의료원은 평일 오전 9시~오후 5시까지 소아청소년과 외래 진료를 하고 만15세 이하 소아청소년으로 오후 6~10시까지 응급실 소아아간진료를 하고 있다.

24시간 응급실 진료를 통해 지역민이 믿고 언제든지 찾을 수 있는 지역 유일 공공병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정수 기자

## 울릉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순풍에 돛

### 울릉군&한국환경공단 하수도시설 설치사업 위·위탁 '협약' 체결...

울릉군이 한국환경공단과 손잡고 '현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및 '나리 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 2건에 대해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

군은 협약체결로 남양(2020년 8월 준공), 태하(2024년 7월 준공예정), 천부(2025년 2월 준공예정)에 이어 현포, 나리까지 하수도분야 전문 경험과 기술력을 보유한 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사업은 총사업비 79억원을 투입, 노후된 나리 하수처리장(준공 2016년 도래)의 처리공법 변경을 포함한 전면적인 개량과 현포에 하수처리장 110톤일 설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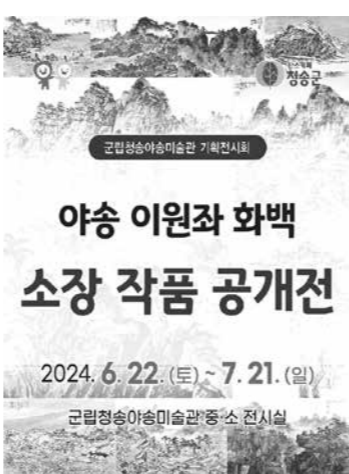
오수관 3.34km 신설 및 우수관 0.424km 개량, 190가구 배수설비를 정비, 올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고 2028년까지 준공한다.

사업이 마무리 되면 정화조가 필요 없게 돼 정화조 청소비용 절감은 물론, 건축물의 증·개축, 신축시 정화조를 따로 설치할 필요가 없어 정화시설 설치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오·우수를 분리, 오수를 따로 처리하는 시설을 갖춰 악취차단을 가능하게 해 하수도에 대한 주민들의 부정적인 이미지 개선과 함께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된 오수는 하수처리과정에서 부유물 및 오니를 제거, 고도처리된 방류수는 공공수역으로 방류, 하천과 바다의 수질이 개선된다. 남한권 울릉군수는 "맑고 깨끗한 천혜의 자원, 다시 찾고 싶은 울릉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윤환 기자



라의 아름다운 산천을 실경산수로 담아낸 작품들과 소나무 및 수석 등을 담은 소품들이 전시된다. 야생 화백이 생전에 소장하고 있었던 작품들로 청송군과 유족이 함께 기획한 전시회이다. 전시작품들을 통해서 지역 주민과 미술관 관람객들이 야생 화백의 폭넓은 작품 세계에 대해 다시 한번 큰 감흥을 불러 올 것으로 보인다. 윤병문 기자

### 영천 영주 봉화 의성 고령 성주



#### 봉화군, 솔잎혹파리 방제사업 실시

봉화군은 관내 소나무 생육에 피해를 주고 있는 솔잎혹파리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고 우량 소나무를 보호하기 위해 '2024년도 솔잎혹파리 방제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제사업은 봉성면 우곡리 일대 소나무림 30ha를 대상으로 하며, 이달 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인체 및 환경에 피해가 적은 저독성 약제를 사용해 방제를 실시함으로써 주민과 환경 보호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방침이다.

김재원 산림소득자원과장은 "솔잎혹파리뿐만 아니라 매미나방 등 주변 산림에 피해를 입히는 산림병해충을 적기에 방제함으로써 봉화군의 소중한 산림자원을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봉화군은 이번 방제사업을 통해 소나무림의 생육 환경을 개선하고 산림 생태계의 건강성을 회복시켜 주민들에게 더욱 쾌적한 산림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적절한 방제 조치를 통해 산림 병해충의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전상기 기자



#### 영주시, 집중호우 대비 도로 측구 점검·정비 실시

영주시는 24일부터 28일까지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관내 주요 도로 측구를 대상으로 일제 사전점검 및 정비를 실시한다.

시는 5조 16명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도로 측구에 쌓인 쓰레기와 퇴적물 등을 제거하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조치한다.

점검결과 준설이 필요한 측구는 집중호우가 시작되는 7월 전까지 전문업체를 통해서 긴급 보완 조치 완료할 방침이다.

또한 해마다 반복되는 상습 저지대 침수 지역인 영주 지하차도(휴천동 소재) 등 5개소 측구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점검 정비하여 선제적으로 호우피해로 인한 재해를 예방한다.

황규원 건설과장은 "최근 집중호우 빈도가 증가하고 있어 측구 개 정비 없이는 도로이탈 등 큰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편, "관내 도로 전반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정비를 진행해 호우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전상기 기자

# 한지형 마늘은 의성이 최고... 판로 개척에 심혈

로코노미 제품으로 새로운 판로 개척

의성군은 전국 최대 한지형 마늘 주산지이다.

의성마늘은 우량종구 품종갱신을 통해 6~8쪽으로 분화하고 알린 성분이 많아 고유의 매운맛과 30브릭스 이상의 높은 당도를 가지고 있다.

또한 즙액이 많으며 살균력이 강해 김장 양념에 많이 사용되고, 눈 이모작 재배로 인해 병해충에 강하고 월동으로 인해 저장성이 강하다.

현재 의성군은 첨단기술을 활용해 생산을 효율화하고 지역 특색을 가미한 제품 다양화 전략을 더해 재배 면적 감소 및 소비 위축 위기를 극복하고 있다.

군은 지난 14일에 진행된 의성마늘 기계수확 현장 전시회를 통해 넓은 두둑폭과 경운기형 기계에 중점을 둔 노동집약적인 관행 마늘 재배방식에서 벗어나, 파종·수확·병해충 방제에 최적화된 다양한 트랙터 부착형 마늘 기계를 보급하여 인건비를 크게 절감하고 농가경쟁력을 개선하는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의성마늘의 특색을 가미한 다양한 로코노미 제품으로 새로운 판로도 개척한다.

의성마늘을 활용한 의성마늘맛도그가 대표 주자이다. 이 제품은 명랑햇도그에 들어가는 일반



한을 의성마늘함으로 바꾼 점이 특징이다.

롯데웰푸드는 지난 2006년부터 의성군의 특산물인 마늘을 활용한 다양한 랩 제품을 생산해왔으며 롯데웰푸드가 매년 의성농가에서 구입하는 마늘량은 연간 120톤(0)이다.

이를 통해 의성군만의 특색 있는 제품을 발굴해

농산물 판로를 확대하고 기업과 지역의 상생 발전을 이뤄낼 예정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인건비 상승으로 마늘 농사방식이 한계에 이르렀는데 파종부터 수확까지 재배 전과정 마늘 기계화 우수모델 육성사업을 통해 인력투입을 최소화하고 생산비를 줄여 지속가능한 의성마늘 재배방식을 확립

하는데 더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차별화된 경험과 가치 소비를 중시하는 로코노미가 새로운 소비 경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마늘을 활용한 새로운 상품들을 개발해 농산물 홍보와 소비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박재성 기자

## 영천시, 동남아 수출길 확보 위한 무역사절단 첫 발걸음

### 관내 기업의 글로벌 수출 판로 마련

영천시는 지역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확보 및 해외 판로개척을 위해 베트남, 대만으로 무역사절단을 파견한다고 24일 밝혔다.

동남아 무역사절단은 오는 27일 베트남 하노이, 29일 대만 타이베이에서 각각 수출상담회를 개최한다.

최기문 영천시장을 비롯한 영천시 관계자, 영천시의회 의원, 참가기업 대표, 경상북도 경제진흥원 관계자 등 약 20여 명의 무역사절단은 24일 베트남 하노이에 도착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하

노이무역관에서 베트남 및 동남아 지역 시장 동향 설명회 및 영천시 중소기업의 베트남 진출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한다.

25일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방문해 영천시 농식품 수출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하며, 베트남 K-MARKET 본사를 방문해 영천시 농·특산물 베트남 수출 확대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또한 무역사절단 참가기업 제품의 홍보를 위해 K-MARKET 골든점에서 상품 판촉전에 참가할 예정이다.

26일에는 베트남 바이어를 초청한 수출상담회를 개최해 바이어들과 영천시 중소기업과의 밀착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며, 베트남 중소기업협회를 방문해 중소기업 지원 및 판로 교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27일에는 주베트남 한국상공인연합회(하노이)에 방문해 양 기관의 상생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28일에는 대만 타이베이에서 무역사절단 수출상담회를 진행한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무역사절단은 경쟁력 있는 지역 중소기업이 해외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 직접적인 수단이다"라며 "기업별 일대일 맞춤형 수출상담회 등을 통해 우리 지역기업의 우수제품을 널리 알리고 수출에도 성공적인 결과가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은하 기자

## 영주시, 하계 대학생 아르바이트 20명 모집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서 신청·접수 주 4~5일, 1일 6시간 근무...

영주시는 관내 대학생들이 시장 업무를 체험하고 사회적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2024년 하계 대학생 아르바이트 참여자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12개 사업장(△안정면 행정복지센터 △대산광복단기념공원 △영주문화원 등)에 20명을 선발한다.

모집기간은 6월 24일부터 7월 2일까지다.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영주시청 일자리경제과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필수 제출 서류는 신청서, 재학 또는 휴학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이다.

신청자격은 6월 23일 기준 영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8세 이상 29세 이하 대학교 재학생 및 휴학생이다. 다만, 2023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동일 사업 참여자 및 대학원생은 제외된다.

선발은 우선선발(20%, 국민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과 일반선발(80%)로 유형을 구분한 후

공개 추첨으로 진행하며, 선발자에게 7월 9일 우선으로 통보할 예정이다.

선발된 대학생들은 7월 15일부터 8월 11일까지 근무를 하게 되며, 1일 6시간, 주 4일 또는 5일 근무를 한다. 1일 임금은 5만9160원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 채용공고란 및 영주시청 일자리경제과(☎054-639-6153)로 문의하면 된다.

최대열 일자리경제과장은 "이번 하계 대학생 아르바이트 지원사업이 대학생들의 경제적 자립심을 키우고 사회 진출에 대한 자신감을 갖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관내 대학생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전상기 기자

### 봉화군, 2024년 의료취약지 소아청소년과 지원사업 공모 선정

봉화군은 2024년 보건복지부 '의료취약지 소아청소년과 지원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 이번 공모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소아청소년과가 없는 의료취약지역 주민의 의료서비스 이용 보장을 위한 공모사업으로, 지난 5월 전국 22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으로 봉화군을 선정했다.

선정기관인 봉화해상병원은 1차년도 시설·장비비 1억9200만원, 운영비 1억2500만원(국비 50%, 지방비 50%), 2차년도부터는 연간 운영비로 2억5천만원을 지속적으로 지원 받게 된다. 도재훈 기자

## 고령군수배 대가야 전국 철인3종대회 준비위원회 발대식

고령군은 지난 21일 대가야읍 금빛마실 어울림센터 3층 회의실에서 대가야 전국 철인3종대회 준비위원회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조용호 고령군 체육회장, 전해명 고령군철인3종협회장, 손창형 준비위원장, 김상표 경북철인3종협회장 등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했다.

발대식은 개회선언을 시작으로 국민의례, 경과보고, 위촉장 전달, 대회 요강 보고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으며, 손창형 준비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20년의 경험과 대회 기획 등의 실무 능력을 바탕으로 이번 대회가 안전하게 치러지고 고령군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전국 철인들이 정보를 교환하는 KTS(코리아 트라이애슬론 서비스)의 운영자인 강승규 전 계명대학교수가 특별히 참가하여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적극 홍보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배영백 기자



다. 조승진 안전분과위원장(한국시민안전교육진흥원 경북지부 대장)은 철인3종 대회는 특히 안전이 중요한 만큼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대가야 전국 철인3종대회는 "철기 문화를 꽃피운 대가야 철인이 온다!"는 슬로건 아래 오는 11월 2일부터 3일까지 낙동강의 멋진 풍광을 볼 수 있는 다산면 은행나무 숲 일원에서 열리며, 총 800명의 선수가 참가하여 철인의 기량을 뽐낼 예정이다. 배영백 기자

## 한국자유총연맹 고령군지회, 6·25 전쟁 음식 재현 및 시식회

한국자유총연맹 고령군지회는 24일(월) 대가야읍 중앙네거리에서 여성회와 청년회 등 회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6·25 전쟁 음식 재현 및 시식회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6·25 전쟁 당시 피난민들이 실제로 먹었던 주먹밥과 보리떡, 삶은 감자 등을 시식해 봄으로써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과 전쟁의 아픔을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기 위해 개최됐다.

5일 장이 열리는 장날을 맞아 대가야전통시장을 방문하는 군민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는 형태로 진행됐다.

권오근 한국자유총연맹 고령군지회장은 "6·25 전쟁은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가슴 아픈 역사이자, 후손들이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 생존하신 모든 참전유공자들과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모든 분들의 숭고한 희생에 감사와 드린다. 이번 시식행사를 통해 전쟁의 폐해와 자유민주주의의 중요성에 대해 한번 더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한국자유총연맹 고령군지회는 태극기 달아 주기, 안보현장견학 등 올바른 안보관 확립과 자유민주주의의 수호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배영백 기자



민족을 있게 한 모든 분들의 숭고한 희생에 감사와 드린다. 이번 시식행사를 통해 전쟁의 폐해와 자유민주주의의 중요성에 대해 한번 더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한국자유총연맹 고령군지회는 태극기 달아 주기, 안보현장견학 등 올바른 안보관 확립과 자유민주주의의 수호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배영백 기자



**DGFEZ**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Daegu-Gyeongbuk Free Economic Zone Authority

[www.dgfez.go.kr](http://www.dgfez.go.kr)

## 성공을 위한 선택!

DGFEZ와 함께 빛나는 미래를 설계하세요



ICT  
수성알파시티



자동차&건설기계부품,  
첨단 의료 기기  
경산지식산업지구



미래 모빌리티 &  
기계 부품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



바이오, 신약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 ▶ 8개 투자지구마다 조성하는 활발하고 촘촘한 ‘혁신생태계’
- ▶ 대구·경북권 52개 대학에서 배출하는 풍부한 인적 자원
- ▶ 훌륭한 교통 인프라: 8개 고속도로, 대구국제공항, 항만, KTX역 등

대구광역시 동구 팔공로 227, DTC 5층&6층(41028)  
Tel 053-550-1500 E-mail invest@korea.kr




Website
VR



꽃바다 시민공영 행복경산

# 대학도시를 넘어 창업도시로! ‘ICT허브도시 경산’





## 문경 모든 여행을 담다



역사·문화·풍경 속을 걷는  
문경 여행의 꽃

문경새재도립공원

932종 동식물의 보금자리  
환경부지정 습지보호지역

돌리네습지

국내 최초 문화 생태 영상  
복합 테마파크

문경에코월드

전통과 현대, 자연과 문명이 공존하는  
생생한 역사와 문화의 보고, 문경  
다양한 체험과 볼거리가 가득하고  
1년 내내 색다른 재미를 더하는 축제까지!  
문경에 머무는 모든 순간이 추억이 됩니다.

MG 문경시